

‘자치를 배우고… 가치를 나누다…’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대공연장서 ‘2025 전북 학생자치 페스타’… 학생자치 운영 사례 등 공유

지역별·학교급별 학생자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대공연장에서 ‘2025 전북 학생자치 페스타’를 개최했다. ‘자치를 배우고, 가치를 나누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는 기획부터 운영, 발표 등 전 과정에 걸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도내 최초의 학생자치 행사다. 특히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을 맞아 도내 초중고교 학생회장단, 학생자치 담당교사, 학부모 등 6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학생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교 ‘소화기’ 밴드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학생자치 활성화 기여 학생 표창장 수여, 학생자치 운영 사례 나눔, 전북학생회의 의정활동 공유, 연극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자치 운영 사례 나눔에는 △익산초(건강하고 민주적인 선거와 활동) △전주동중(가치로 엮은 학생자치 존중·환경·연대) △전주근영여고(자치로 바꾸는 학교, 리:빌드 프로젝트)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 80년 오월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연극 ‘오! 급식상’도



5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대공연장에서 ‘2025 전북 학생자치 페스타’가 열린 가운데,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올해 학생자치 활성화 기여 표창장 수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보였다. 경쾌한 음악·춤·포먼스가 어우러진 생동감 넘치는 무대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N행시 짓기, 학생회 운영 고민 나눔, 경품 추첨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어져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 대표들과 직접 만나서 운영 사례를 나누니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배울 점도 많았다”며 “연극과 공연도 재미있었지만, 우리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전북 최초로 학생자치 페스타를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고, 교육의 주체로 성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장승민 석사과정생 이공분야 연구장려 지원 선정

전북대학교 반도체과학기술학과 나노반도체공학연구실(지도교수 김희대) 소속 정승민 석사과정생이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공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정승민 학생은 학부 2학년부터 김희대 교수 연구실에 소속돼 학부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반도체 양자구조 광물리 연구에 매진해왔다. 학부 4학년 재학 중에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했으며, 석사 1년 차에도 논문을 발표하며 연구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지속가능사회와 생활과학' 주제 학술대회

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소장 노정욱)가 ‘지속가능사회와 생활과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일 막을 올린 이 행사는 ‘2025 JBNU Research Fair’와 연계해 식품영양학·의류학·아동학·주거환경학 등 4개 분과가 참여하는 통합 학술세미나 형태로 열리고 있다. 먼저 기초강연은 6일 오전 10시 김보국 전북연구원 전 부원장이 ‘지속가능사회의 탄소중립생활’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각 분과별로 다양한 전문가 강연이 펼쳐진다. 4일 아동학 분과에서 허청아 올디너리매직 대표와 의류학 분과에서 윤소정 (주)엠씨비티엘 이사가 각각 ‘놀이와 세상을 바꾸다 - 피카비 창업 이야기’, ‘지속가능한 패션소비자’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5일 오전 주거환경학 분과에서 신지영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저장성책실장이 ‘기후회복사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같은 날 식품영양학 분과에서는 김운숙 한국식품연구원 박사가 ‘푸드테크의 혁명: 대체육과 감각과학’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대응의 뉴 노멀, 의료 AI를 말하다

적응형AI 연구실 주최 세미나 의료 AI 발전 현황 등 다뤄

감염병 대응과 진단, 다양한 의료 현장에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방향이 논의된 의미 있는 세미나가 전북대 적응형AI 연구실(주임교수 조재혁) 주최로 지난 3일 인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의 뉴 노멀, 의료 AI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감염내과)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AI의 발전 현황과 신뢰성 확보 방안, 데이터 편향, 윤리적 검증 등 기술과 공공보건 간의 교차 지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조발표에 나선 이재갑 교수는 “AI는 이미 비임상 영역뿐 아니라 감염병 예측과 진단 보조 분야에서도 성과를 가시화되고 있다”며 “AI-CDSS(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적용을 통해 항생제 처방이 47% 감소하고 내성균 예측 정확도가 90%에 달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의료AI의 3대 핵심 쟁점으로 △신뢰성(reliability) △데이터 편향(data bias) △윤리적 검증(ethical & clinical validation)을 꼽았다. 이 교수는 “AI 모델은 병원별 환자군이나 장비환경이 달라지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며 다기관 검증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편향은 의료 형평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표준화·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AI의 판단 오류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만큼 윤리적·법적 정립이



전북대 적응형AI 연구실 주최로 열린 감염병 진단·치료 AI 활용 세미나에서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사진 왼쪽)가 기조발표에 나서고 있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조재혁 교수(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는 의료AI가 신뢰받기 위한 세 가지 축으로 △AI 신뢰성 확보 △데이터 편향 해소 △윤리·의학적 검증을 제시했다. 그는 “AI는 환경이 달라질 때 성능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기관 검증과 모델 해석 가능성이 필수적”이라며 “특정 집단에 치우친 데이터는 진단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표준화된 데이터셋이 공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AI의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성의 균형 등 제도적 논의가 병행해야 한다”며 “AI는 감염병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의료는 결과보다 과정과 근거가 중요한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간호, 공공보건, IT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AI의 진보와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전북대 간호학과 장형은 교수는 “AI 기반 예측 모델은 감

염병 유행 시 의료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AI-CDSS를 통한 항생제 사용 감소는 단순 효율화가 아니라 의료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고주연 박사는 “AI는 임상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며 “병원 간 데이터 사일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아이브랩 이준욱 이사는 “AI의 신뢰성은 정확도뿐 아니라 메모리 사용량, 응답성, 데이터 편향 조정 등 시스템 안정성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라벨링 기준과 장비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데이터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조재혁 교수는 “AI는 의료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혁신적 도구이지만, 신뢰성과 설명가능성, 데이터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료AI의 범용화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장은성 기자



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 이해(러닝퍼실리테이션)’ 연수를 진행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교육과정 속 사회정서 역량 강화 연수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올 한 해 학교 관리자·교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장수교육지원청 교육나눔 한마당 주간인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교사 대상 전문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단편적인 감성교육을 넘어 교육과정 전반에서 사회정서 핵심 역량이 함양되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일에는 초·중학교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통한 사회정서 교육’ 강의(강사 노미숙)를 운영해 그림책 기반 활동, 감정 이해, 관계 형성 등 실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5일에는 관내 학교 사회정서교육 담

내년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대비

전북교육청, 교육지원청 등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내년 3월 1일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지역 연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맞춤형 통합지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의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 중심, 지역 연계형 학생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진다는 데 의미를 뒀다. 워크숍에는 14개 교육지원청, 지자체(시·군청),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관 등 기관실무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전북교육청 학생맞춤

통합지원 정책 추진 현황 안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이해 및 우수사례 공유(이돈집 전 삼정중 교사) △기관별 역할 인식과 협업 방안 논의 △지역별 실행전략 수립 등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했다. 또, 소규모 그룹별 토의와 전체 공유를 통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실천 가능한 협력 방안도 도출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정책이며,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평가 역량강화 연수

도내 고교 교감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잠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고등학교 교감 및 평가업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과 관련해 학교 평가관리체계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분청 업무담당 장학사들이 △대학 입시에서 바라본 성취평가제 △학업성적시험 관리지침의 중요성과 학생평가 유의사항 △서·논술형평가 시대, 학교 평가관리체계의 변화와 대응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장은성 기자

먼저 신영준 대입담당 장학사는 ‘대학 입시에서 바라본 성취평가제’를 주제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전면 적용에 대비해 학교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미진 평가담당 장학사가 ‘단위학교 학생평가 출제·검토 과정의 중요성’을 주제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한 출제 및 검토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문항 출제 시 원칙과 절차 준수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지는 평가담당 장학사는 ‘서·논술형 평가와 성취평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평가체계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서·논술형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심화·전문가 단계별 연수 운영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장은성 기자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 세우는 계기’

전주대에서 ‘캠퍼스 연합예배’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지난 4일 J아트홀에서 진행한 ‘캠퍼스 연합예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배는 전주대 선교봉사처가 주최하고 웨이브프로젝트팀(전북기반 전문 예배팀) 주관으로 전북 지역 대학 선교단체와 기독교 학생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적 교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신재웅 목사(페이지처치)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최대치’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과 책임에 대해 진술하고도



도전적인 내용을 전달해 큰 울림을 줬다. 선교봉사처 관계자는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퍼스와 지역 속에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예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GTEP사업단, 제20기 무역전문가 요원 모집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은 2026년도 제20기 GTEP 요원을 모집한다. 이번엔 선발된 학생들은 해외 수출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발굴,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무역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2026년 1월 기준 졸업까지 2학기 이상 남은 전북대 재학생(3~4학년)으로,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외국어 공인 성적 보유자, 무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자라, KOTRA deXters 프로그램 이수자 등은 선발 시 우대된다. 제20기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참가 학생들은 국내외 무역박람회 참가, 무역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 지원, 스터디·인강 지원, 최대 18학점 인정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학생중심성장 리더특강… 전혜철 전 행안부장관 초청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4일 ‘세상을 바꾸는 제도,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넘어’라는 주제로 학생중심성장 리더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기후위기와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전혜철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초청해 기후변화와 사회 불평

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도적·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후위기의 원인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 △정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상위 10%가 소득의 43.3%를 차지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회보장 확대와 임금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적 관용과 협치 문화의 정착을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